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에 관한 연구

이은희^{1*}, 최광선²

¹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²모자복지시설 보리수마을

A Study on Eco-systemic Factors that affect the independent will of the female single parent householder

Eun-Hee Lee^{1*} and Choi, Gwang Seon²

¹Dept. of Social Welfare, Dongguk University

²Welfare facility of mother and child Borisumaoul

요 약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 근거하여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 향상을 위한 개입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영남지역 모자보호시설에 거주하는 176명의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들이다. 본 조사는 2011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 연구의 분석은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을, 그리고 생태체계적 요인이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각 단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들의 자립의지에는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운데서는 연령과 입소기간이, 개인체계 요인 가운데서는 자기효능감의 정도가, 가족체계요인 가운데서는 가족의 문제해결에 대한 대처행동이, 그리고 사회체계요인 가운데서는 확대가족 및 친지로 부터의 지지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하여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들의 자립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co-systemic factors that affect the independent will of female single parent householder. The subjects were 176 female single parent householder who reside in public facilities for single mother family.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through frequency, percentage, correlation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are as follow. The factors that affect the female single parent householder's independent will are the age, duration of living in public facilities, levels of self-efficacy, the ability to cope with problem-solving, and the levels of support received from extended family. According to these findings, intervention strategies that focus on increasing the female single parent householder's independent will are suggested.

Key Words : Female single parent householder, Eco-systemic factors, Independent Will

1. 서론

한부모 가족이란 '이혼, 별거, 사망, 유기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양친 중 한쪽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이때, 자녀의 보호를 누가 맡는냐에 따라 모가 주 양육자이면 여성 한부모가족으로, 부가 주 양육자이면 남

*Corresponding Author : Eun-Hee Lee

Tel: +82-10-9266-2890 email: leh@dongguk.ac.kr

접수일 12년 04월 17일

수정일 (1차 12년 05월 29일, 2차 12년 06월 07일)

게재확정일 12년 07월 12일

성 한부모가족으로 불리게 된다[1]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자료에 의하면 1985년 84만 8천 가구였던 한부모가구가 2005년에는 무려 137만 가구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200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여성 한부모가구는 108만 3천 가구, 남성 한부모가구는 28만 7천 가구로 여성 한부모가구가 남성 한부모가구보다 약 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2]. 그런데 여성가족부의 통계자료[3]에 의하면 한부모가구 내에서도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구가 저소득 남성 한부모가구보다 약 4배정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특히 여성 한부모가구 중 저소득 여성한부모가구의 비율은 99.96%로서 실제로 여성 한부모가구의 거의 대부분이 가족경제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렇게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족의 빈곤문제해결을 위해 그들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경제적 자립의 성공여부에는 자립의지가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자립의지는 자신이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 삶의 의미를 부여하며 경제적 정서적 사회적 빈곤으로부터 자활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과 자기선택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곤층의 빈곤탈피를 위해 대단히 중요하고 적절한 변수라 할 수 있다[5]. 자립을 돕기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는 자립보다 수급을 유지하려는 의존적인 심리가 팽배해지는 실태를 볼 때,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게 느껴진다.

생태체계적 관점은 개인과 환경 양자사이의 관계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개인의 대처능력과 환경의 요구 간에 더 나은 일치를 이루려는 사회복지실천의 초점과도 부합되어 사회복지 실천에서 가장 중요한 관점으로 자리 잡고 있다[6]. 따라서 생태체계적 관점은 사회복지사가 실제 서비스를 시작하기 전에 현실세계의 모든 측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함으로써 사회복지사의 영역을 확대시키고, 그 상황에 적합한 관점, 모델, 방법, 기법을 사용하여 사정할 수 있게 한다. 그러므로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어느 한 요인보다는 개인과 환경의 다각적 차원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근거한 연구가 유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근거하여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 향상을 원조하기 위한 개입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2. 여성 한부모가족의 빈곤과 자립의지

우리나라 여성 한부모가족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경제적 문제로 나타났는데, 대부분의 여성 한부모가족은 이혼이나 사별 후 소득이 1/2 혹은 1/3이 감소되거나 상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7]. 외국의 선행연구들[8]에서도 빈곤문제를 모자가정이 직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하고 있듯이 여성 한부모가족의 빈곤문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여성 한부모가족과 함께 이들의 빈곤 심화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저소득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활 및 자립과 관한 연구[9,10,11]가 꾸준히 진행되어져왔다. 자립은 저소득층이 당면한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들의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서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복지의 새로운 이념과 목표가 되고 있다. 자립은 재활, 자활, 이후의 과정으로서 궁극적인 복지의존의 탈피, 안정된 삶의 질에 도달한 상태를 의미한다[12]. 선행연구결과들[13,14]에 따르면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경제적 자립의 성공여부에는 그들의 자립의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의지는 자립을 이루고자하는 대상자의 심리적 과정이나 욕구로서 변화상황에 대한 자신감 및 자아통제능력을 말한다. 이러한 자립의지는 대상자들이 사회의 여러 가지 제도를 활용하고 생활의 변화를 스스로 추진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므로[15], 빈곤층의 빈곤탈피를 위해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적절한 변수라고 한다[16]. 따라서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을 원조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을 돕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 연구방법

3.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들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영남지역 모자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들이다.

본 조사는 2011년 9월 28일부터 10월 11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자료수집방법은 연구자가 해당시설의 관리자 및 시설장에게 전화 또는 공문발송을 통하여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이를 수락한 기관에 우편으로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기관은 영남지역 19개의 모자보호시설 가운데 11개 시설이

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22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총 201부가 회수되었으며, 그 가운데 무응답이 지나치게 많은 25부를 제외한 176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2 분석방법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SPSS 19.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빈도 및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생태체계적 요인이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을 각 단계적으로 비교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3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독립변인은 다양한 생태체계적 요인 가운데 개인체계 요인, 가족체계 요인, 사회체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개인체계 요인은 자기효능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기효능감은 Sherer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다. 본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89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체계 요인은 자녀와의 관계와 가족의 대처전략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자녀와의 관계는 현온강·조복희가 개발한 부모역할 만족도 척도 가운데 부모자녀관계 10문항, 자녀와의 지지 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와의 관계도 만족스럽다. 본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92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가족의 대처전략을 알아보기 위해서 McCubbin에 의해 개발된 F-COPES(Family Crisis Oriented Personal Evaluation Scale)를 사용하였다. F-COPES는 세 가지의 내면적 그리고 다섯 가지의 외면적 대처전략의 사용빈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외면적 대처전략은 본 연구의 사회체계요인과 중복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내면적 대처전략만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세 가지의 내면적 대처전략은 스트레스적인 경험을 보다 이해 가능하고 다룰 수 있는 방법으로 재정의하는 능력인 '재정의'와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 그리고 문제에 대한 회피적 반응인 '수동성'의 정도를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1-강하게 반대, 5-강하게 찬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84로 나타났다.

사회체계요인은 사회적 지지로 구성되어 있고 박지원

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확대가족과 친척·친구·이웃·종교 그리고 기관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도 높다. 본 척도의 각 하위변인에 대한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97로 신뢰성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종속변수는 한부모 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로 박영란·강철희[17]가 신화용·조병은[18]이 개발한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제작한 자립의지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 5점 척도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자립의지도 높다. 본 척도의 내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의 값이 .93으로 신뢰성이 높게 나타났다.

4. 연구결과 및 분석

4.1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4.2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회귀분석에 앞서 먼저 연구모형에 투입된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검증을 실시하였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종교유무와 자녀수를 제외한 모든 변인들이 연구대상자들의 자립의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에서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의심할 만큼 높은 상관계수는 볼 수 없다. 그리고 분산팽창요인(VIF)의 범위는 1.184~4.552, 공차한계(tolerance)는 .220~.845 사이로 다중공선성이 존재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3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적 요인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4단계에 걸쳐 위계적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회귀모델에서는 생태체계적 모델에 근거하여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제일 먼저 투입하고 그 다음은 개인체계요인, 가족체계요인, 그리고 사회체계요인의 순으로 모델에 투입하여 각각의 영향력을 탐색하였다.

우선 1단계에서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에 해당되는 연령, 교육연한, 종교유무, 입소기간, 근로소득, 건강상태, 자녀수를 투입하였다. 이 변수들은 자립의지를 18%설명하였고 이 가운데 '교육연한'($\beta = .153, p = .048$), '입소기간'($\beta = -.182, p = .015$), '근로소득'($\beta = .226, p =$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Table 1] Characteristics of sample

항목	구분	명	%
연령 ¹⁾	20대	12	6.8
	30대	60	34.1
	40대	90	51.1
	50대 이상	11	6.3
	무응답	3	1.7
학력	초졸	3	1.7
	중졸	10	5.7
	고졸	117	66.5
	대졸이상	46	26.1
종교	불교	26	14.8
	천주교	5	2.8
	기독교	94	53.4
	기타	51	29.0
결혼상태	미혼	13	7.4
	결혼 후 별거	5	2.8
	사별	14	8.0
	이혼	127	72.2
	기타	15	8.5
	무응답	2	1.1
지원형태	조건부수급자	51	29.0
	일반수급자	58	33.0
	자활특례자	5	2.8
	차상위계층	40	22.7
	기타	21	11.9
	무응답	1	0.6
시설 입소기간	1년 미만	44	25.0
	1~2년 미만	41	23.3
	2~3년 미만	37	21.0
	3년 이상	54	30.7
전체		176	100.0

항목	구분	명	
직업	사무직	22	12.5
	영업직	5	2.8
	판매 및 생산직	27	15.3
	자영업	7	4.0
	서비스직	30	17.0
	자활근로사업	31	17.6
	전문직	17	9.7
	기타	37	21.0
	수입유형	국가보조금	52
직업	직업	108	61.4
	가족/친척지원	3	1.7
	사채	1	0.6
	모아둔저축	1	0.6
	기타	10	5.7
	무응답	1	0.6
월 근로소득	50만원 미만	10	5.7
	50~70만원미만	41	23.3
	70~90만원미만	53	30.1
	90~120만원미만	55	31.3
	120만원 이상	15	8.5
건강상태	매우 나쁘다	6	3.4
	나쁜 편이다	33	18.8
	보통이다	99	56.3
	좋은 편이다	31	17.6
	매우 좋다	7	4.0
	무응답	1	0.6
자녀수	1명	72	40.9
	2명	80	45.5
	3명	19	10.8
	4명이상	4	2.3
	무응답	1	0.6
	전체		176

※ ¹⁾ Mean = 40.36, S.D = 7.25, Min = 24, Max = 63

[표 2] 주요변인의 상관관계
[Table 2] correlation of main factors

변인	종속	통제변수								독립변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자립의지	1												
2 연령	-.104*	1											
3 교육년한	.226**	-.200**	1										
4 종교유무	-.011	.087	.014	1									
5 입소기간	-.237**	.176*	.002	-.062	1								
6 근로소득	.271***	.046	.223**	.064	-.019	1							
7 건강상태	.244***	-.054	.126	.000	-.132	.101	1						
8 자녀수	-.077	.193*	-.110	.202**	.091	.003	.048	1					
9 자기효능감	.508***	.201**	.174*	.098	.044	.336***	.140	.022	1				
10 자녀관계	.379***	.082	.102	.027	-.023	.178*	.165*	.010	.459***	1			
11 가족대처전략	.256***	.208**	.106	.289***	.062	.023	.093	.058	.347***	.415***	1		
12 사회적지지	.144*	.212**	.089	.200**	.197**	.054	.024	.023	.263***	.253***	.567***	1	

*p < .05, **p < .01, ***p < .001

.003), 그리고 ‘건강상태’(β = .157, p = .035)가 자립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확인되었다. 즉 교육년한이 길수록, 입소기간은 짧을수록, 근로소득은 많을수록, 그리고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2단계에서는 1단계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개인체계요인에 해당하는 자기효능감의 영향 정도를 검토한 결과, ‘자기효능감’(β = .543, p = .000)은 자립의지에 강하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체계요인을 추가함으로써

24%의 설명력을 더하여 두 번째 모델은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를 총 4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가족체계요인을 투입한 결과 자녀와의 관계는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가족이 사용하는 문제해결을 위한 대처전략 가운데 문제해결의 확신(β = .297, p = .000)이 자립의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이 어려움이나 위기에 처했을 때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이 강할수록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는 강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체계요인을 추가함으로써 약 10%의 설명력을 더하여 세 번째 모델은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를 총

[표 3] 위계적 회귀분석
[Table 3] hierarchical regression

변 인	모델 I		모델 II		모델 III		모델 IV		공선선통계량	
	B(β)	p	B(β)	p	B(β)	p	B(β)	p	공차한계	VIF
인구사회학적 특성										
연령	-.004(-.047)	.535	-.014(-.154)	.020	-.017(-.184)	.003	-.016(-.176)	.005	.766	1.306
교육년한	.046(.153)	.048	.022(.072)	.272	.009(.030)	.627	.010(-.033)	.580	.813	1.230
종교(D)	-.067(-.046)	.543	-.119(-.082)	.198	-.111(-.076)	.224	-.054(-.037)	.561	.724	1.381
입소기간	-.103(-.182)	.015	-.104(-.183)	.004	-.091(-.161)	.006	-.106(-.187)	.002	.879	1.138
근로소득	.006(.226)	.003	.002(.080)	.226	.002(.071)	.256	.002(-.076)	.219	.781	1.280
건강상태	.129(.157)	.035	.075(.091)	.152	.056(.068)	.258	.060(.073)	.212	.869	1.151
자녀수	-.010(-.011)	.882	.027(.030)	.638	.001(.002)	.980	-.008(-.009)	.874	.853	1.172
개인체계										
(자기효능감)			.694(.543)	.000	.459(.360)	.000	.478(.374)	.000	.580	1.724
가족체계										
(자녀관계)					.027(.024)	.733	.014(.012)	.860	.615	1.625
(가족대처전략)										
문제해결의 확신					.307(.297)	.000	.224(.216)	.010	.435	2.301
문제의 재정의					.112(.104)	.211	.079(.074)	.379	.425	2.353
수동성					-.019(-.014)	.859	.103(.076)	.432	.318	3.148
사회체계										
확대가족친척지지							.228(.292)	.000	.464	2.157
친구지지							-.165(-.201)	.104	.196	5.108
이웃지지							.014(.018)	.868	.240	4.173
종교지지							-.091(-.141)	.154	.306	3.264
사회지원기관지지							.046(.067)	.421	.431	2.320
R ²	.180		.423		.518		.569			
Δ R ²	-		.243		.095		.051			
Adj R ²	.143		.393		.480		.515			
Δ Adj R ²	-		.250		.087		.035			
Δ F(p)	4.923(.000)		65.536(.000)		7.528(.000)		2.849(.012)			

(D)는 더미변수를 의미함

52%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단계에서는 사회체계요인으로 다양한 사회적 지지체계를 투입하였는데 그 결과 5%의 설명력이 증가하여 모델을 총 57%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이 투입한 사회체계요인 가운데서는 '확대가족과 친척지지'($\beta = .292, p = .000$)만 자립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확대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립의지가 강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모든 요인들을 함께 고려할 때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입소기간, 자기효능감,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감, 그리고 확대가족과 친척지지임을 알 수 있다. 즉 나이가 적고, 입소기간이 짧으며, 자기효능감이 높고,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이 강하며, 그리고 가족과 친척들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립의지가 강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 근거하여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 향상을 위한 개입시도움이 될 수 있는 실증적인 자료를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과제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연령과 입소기간, 자기효능감, 가족의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감, 그리고 확대가족과 친척들로부터 받는 지지가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나이는 어릴수록, 입소기간은 짧을수록, 개인의 자기효능감은 높고 그리고 가족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감이 강할수록 자립의지도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립의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실천적 함의를 논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가운데 연령과 입소기간이 자립의지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연령대별 그리고 입소기간에 따라 자립의지의 향상과 자립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특히 자립의지가 낮은 것으로 나타난, 연령대가 높은 한부모가족 가구주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과 원조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입소기간이 길수록 자립의지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추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입주자들의 입소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립의지가 낮아진다면, 퇴소 후의 자립을 기대하기가 어

려울 것으로, 이것은 모자보호시설의 설립목적과도 부합하지 않는 결과이다. 따라서 입소기간이 길수록 자립의지가 낮은 원인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개인체계요인에 속하는 자기효능감은 아주 강하게 자립의지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들[19,20]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한 연구[21]에서는 한부모 가구주들이 배우자와의 이별 형태에 따라 그들이 느끼는 감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즉 사별한 경우에는 절망감, 상실감, 우울 등의 감정을 갖게 되고, 이혼, 유기, 별거한 경우에는 손실된 자존감으로 인한 분노, 우울, 무기력, 사기저하 등의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한부모가족의 발생 사유에는 이혼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이들이 낮은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그들의 자존감과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가족체계요인 가운데서는 개인이나 가족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감'이 강할수록 자립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감은 개인이나 가족들이 생활하면서 직면하게 되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사용하는 문제 해결태도와 행동전략의 하나이다. 따라서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들과 그 가족들의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는 지역사회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자원에 대한 정보를 여성 한부모 가구주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여성 한부모 가구주들이 스스로 자립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원조를 통하여 여성 한부모 가구주들이 자립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어려운 상황을 미리 예견하여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가능한 해결 방안을 계획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감'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회체계요인 가운데서는 확대가족과 친척으로부터의 지지가 자립의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우리사회에서 한 부모 가족을 바라보는 관점은 새로운 가족 형태로 인식하기보다는 양 부모 중심의 정상적인 가족에서 이탈한 비정상적인 가족, 즉 결여와 무질서, 그리고 사회 문제를 야기 시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22]. 따라서 이혼 등의 사유로 한부모 가정이 되었을 때 주변의 확대가족이나 친척들에게 지지를 받기는 고사하고, 도리어 한부모가족 가구주의 자이나 타의에 의해 기존의 확대가족이나 친척들과의 관계가 약화되거나 관계의 단절까지 경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발생 사유가 이

혼일 경우에는 전배우자의 확대 가족이나 친지들과의 관계의 단절은 물론, 이혼 사실을 감추기 위해 본인의 원가족과 친지들과의 접촉도 기피하는 경우까지 발생한다.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개선하고, 그리고 자의적으로 확대가족이나 친지들과의 관계를 기피했던 한부모가족 가구주에게는 확대가족과 친지들과의 교류와 관계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확대가족과 친지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영남권 지역의 모자보호시설 11개소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를 대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재가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전국적 규모의 연구에 대한 필요성과 함께 재가 여성 한부모가족 가구주에 대한 비교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는 생태체계적 관점에 근거한 연구이지만, 각 체계에 포함되는 다양한 요인들을 모두 포함시켜 조사분석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생태체계를 구성하는 보다 더 다양한 요인들을 독립변인에 포함시켜 이들의 영향을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References

- [1] Lee, Eun Hee-Koo, Jung Hwa. "The Impact of Family Resilience on the Adaption of Single-Parent Family". *Journal of Korean Family Relation* 28(1). 2008.
- [2] Kim, Sung Kun, Kim Tae Wan, Im, Sung Eun, Ko, Eun Ju. "A Study on the Single Parent family Life Stability and Children Care Support Reinforcement Program".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09.
- [3]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Single Parent family Life Stability Support Project Guide, 2007.
- [4] Park, Yeong Ran, Kang, Chul Hee, A Study on the Factors that Predict Low- Income Single Mothers' Sense of Self-Relianc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 1999.
- [5] Beun, Ku Ran, Impacts of psycho- social factors on single mother's will of self-reliance in single mother family shelters,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Yeunsei University, 2007.
- [6] Son, Duk Soon, A Study on the Ecological Factors of the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 Focused on the Depress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Kangnam University, 2005.
- [7] Lee, Jin Sook, The Actual Condition of single parent family - The role and development plan of single parent family welfare agency-41th single parent family welfare seminar, 2010
- [8]Duncan, S., R. Edwards, Single Mothers in an International Context: Mothers or Workers? London: UCL Press, 1997.
- [9] An, Jong Soon,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the low-income single parent female householder's economic independent degree,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Yeunsei University, 2001
- [10] Beun, Ku Ran, Impacts of psycho- social factors on single mother's will of self-reliance in single mother family shelters,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Yeunsei University, 2007
- [11] Lee, Jae Eun, The Influence of Social Support on Independent Will of Low-Income Single Parent Female Householder,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 University, 2009.
- [12] Beun, Ku Ran, Impacts of psycho- social factors on single mother's will of self-reliance in single mother family shelters,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Yeunsei University, 2007.
- [13] Park, Yeong Ran, A Study on the Independent strategy of Low-Income Single mother's family, Korea Policy Institute, 1998
- [14] An, Jong Soon,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the low-income single parent female householder's economic independent degree,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Yeunsei University, 2001.
- [15] Halvorsen, K.. "Symbolic purpose and factual consequences of the concepts Self-reliance and Dependency in contemporary discourses on welfare" *Scand J Social Welfare*, vol 7: pp.56-64. 1998.
- [16] Beun, Ku Ran, Impacts of psycho- social factors on single mother's will of self-reliance in single mother family shelters,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Yeunsei University, 2007.
- [17] Park, Yeong Ran, Kang, Chul Hee, A Study on the Factors that Predict Low- Income Single Mothers' Sense of Self-Reliance,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13 1999.
- [18] Sin, Hwa Yong, Jo Byung Eun, The resources that

single mother perceive and psychological adaptation of single mother.

- [19] An, Jong Soon, A Study on the factors that affect the low-income single parent female householder's economic independent degree,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Yeunsei University, 2001.
- [20] Beun, Ku Ran, Impacts of psycho- social factors on single mother's will of self-reliance in single mother family shelters,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Yeunsei University, 2007
- [21] Han, Kyung Ae, The Problem of divorced women, divorce and family problem Hau, 1993.
- [22] Kim, Eun Kyung, A Study on the Psychological Distress and Social network of Low- Income Single Parent Householder, Master's thesis of the Graduate School of Sogang University, 2003

최 광 선(Gwang-Seon Choi)

[정회원]



- 2012년 2월 :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사회복지학 석사)
- 2006년 1월 ~ 현재 : 모자복지 시설 보리수마을 원장

<관심분야>
가족복지, 여성복지

이 은 희(Eun-Hee Lee)

[정회원]



- 1984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행정학 석사)
- 1997년 2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행정학 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복지, 가족복지